# 국힘 "이재명 단식 끝내고 당에 체포안 가결 요청해야"

## 김기현 대표 병문안 여부
## "현재 상황으론 쉽지 않아"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방탄 단식'을 끝내고 자당 의원들에게 가결 투표를 자진해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8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야당 대표 한 사람의 불법 혐의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국정이 마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뒤집는 정치를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도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말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기개로 체포영장 심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탄 국회, 입법 폭주,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의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 계속된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집회 등 이 모든 것은 이 대표 취임 후 이뤄진 일"이라며 "이 대표 구속을 막고 이 대표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을 벗어나려면 이 대표 스스로 당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단식' 전략이 '법치'를 막아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방탄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국회를 방탄의 무대로 전락시킨 전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식, 병원 후송으로 피할 일이 아니다"며 "본인 개인 비리 혐의로 제1야당을 수렁에 빠뜨리고 국회를 방탄 무대로 만들어 민생과 국정을 어렵게 하는 방탄 단식, 막장 정치를 이제 끝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 김기현 대표의 이 대표 병문안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결국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단식으로 인식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표가 병문안을 간다면 적어도 정치적 화합이나 대화를 위한 변화의 장이 돼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찾은 문 전 대통령 "기운 차리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 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 만남 '강행군'

##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첫날부터 종일 연쇄 양자회담을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오전 10시 뉴욕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불과 9시간 동안 9개국 정상들을 만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행군을 소화했다.

회담 상대국은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이었다. 이 중 산마리노(2000년), 부룬디(1991년), 몬테네그로(2006년) 등 3개국 정상과는 수교 후 첫 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한 번에 20분 가량 배정된 회담 시간을 집약적으로 활용,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당부하는 동시에 각국이 바라는 민원성 협력 방안을 면밀히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만나 "개발 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협력 협정'을 추진해 더욱 활발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마리노의 알레산드로 스카라노·아델레 톤니니 집정관과 만나 "관광협력 양해각서(MOU)가 조속히 체결돼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집정관은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메 부룬디 대통령과 만나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양국이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열고, 녹색 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덴마크 관계는 지난 2021년 5월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에게 "양국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몬테네그로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협력에 특히 관심이 크다"며 "에너지원 다변화 등 관련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귀국 전까지 최대 40개국 넘는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 국힘 "文, 통계조작 석고대죄해야…국격 50년대 수준 되돌린 만행"

##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비난 공세

국민의힘은 19일 전임 정부에서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제히 겨냥하며 비난전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라며 "알고 있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청와대 보고 체계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격을 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 말고도 자료 은폐 또는 누락이 있었다"며 "2019년 5월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관련 보고서 참고 자료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부분을 제외했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자화자찬에 도취해있다. 몽상을 넘어 선택적 건망증에 걸린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제발 잊힌 대통령으로 살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대범죄의 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작에 대해 소명해야 마땅할 텐데, SNS를 통해 혹세무민을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통계 조작은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국민을 속여야 하는 대상, 속일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며 견해(犬豕·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 국힘, 시대전환에 합당 제안…조정훈 "곧 결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시대전환에 합당 제의를 했다고 19일 조 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정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합당 제안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뒤로 시대전환 지도부와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어느 정도 결론을 냈다"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당이 아닌 합당 형식이냐'는 질문에 "합당이 맞다. 실질적으로 내가 입당하면 의원직 상실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긴다"며 "합당 제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합당 시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합당 선언은 결론이 나는 대로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대략 한 달 내외가 될 것이다. 만약에 (합당)하게 되면"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드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